

순정 이

교구계간지
쌍백합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2010년 1월 1일 (다해)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북 505-13-0313012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949호.
주소 | 560-110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전화 | (063)230-1004팩스 | (063)283-9365 <http://jc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출처 : http://designdoneell.com/files/ACT-photos/Globes/SunRisingOverEarth_13008718.jpg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 루카 2,16 -

제 1독서 민수 6,22-27

회답송 시편 67(66),2-3,5,6과 8(◎ 2가)

◎ 하느님은 지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독서 갈라 4,4-7

복음 환호송 히브 1,1-2가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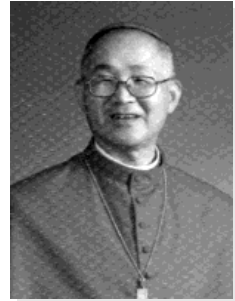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가장 행복하고 큰 인물 - 누군가?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주교구장)

오늘은 새 해 첫 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고, 말이라도 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해주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 미사 제1 독서에서도 하느님께서 사제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저도 여러분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까지는 아니라도 얼굴은 많이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시지도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 어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매일 치명자 산에 가서 순교자들 무덤 앞에 섰을 때나 성당 감실 앞에 꿇어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특히 병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복을 주시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행복은 몰라도 큰 인물은 또 무어냐?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출세는 틀렸으니, 큰 인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저 큰 걱정 없이 그날그날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마태 11,11).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신 그 요한보다도 더 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행복하고 위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고 계실 때 그런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를 부러워하며 어떤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기회를 잡아 예수님께서 누가 참으로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가 11,27-28). 성모님에 관해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루가 2,19).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저는 2010년 제43차 세계 평화의 날 주제로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존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는 하느님의 모든 업적의 시작이며 기초이며 인류의 평화 공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을 반영하여야 하는, 인류와 환경 사이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여야 합니다.



있는 자연은 “어떤 필연성이나 맹목적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당신의 존재와 지혜와 선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생겨났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들은 세상에 대한 지혜로운 계획을 알려 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협력자로 행동하는 대신에 하느님을 대신한다고 자처한다면, “인간의 지배보다 더욱 폭력적인” 자연의 반란을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환경 파괴는 흔히 장기적인 정책들의 결여나 근시안적인 경제 이익 추구에서 기인하고, 결국 이는 피조물에 비극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자연 자원을 이용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보호와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에 수반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제 공동체와 각국 정부들은 환경 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신호를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자원과 기후를 보호하려면 명확하게 정의된 법칙에 따라, 또한 법률적 경제적 관점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의 빈곤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마땅히 보여 주어야 할 연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신 ‘인간에 대한 전문가’로서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창조 질서의 관계에 주의를 돌리고자 노력합니다. 1990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그 위기가 윤리적 위기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연대의 절박한 도덕적 요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자연 서식지의 파괴로 주거지와 흔히는 재산까지도 잃고 강제 이주의 위협과 불안으로 내몰린 “환경 난민들”의 현상이 증대하고 있고, 자연 자원 이용을 둘러싼 실질적 잠재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생명, 식량, 건강, 발전에 대한 권리와 같은 인간의 권리 행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입니다.

세대간의 더 큰 연대 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연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즉각적인 이익이 인간이든 아니든 살아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피조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유 재산의 보호가 재화의 보편적 용도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욱 공평한 세대간 연대 의식에 덧붙여,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 산업국들의 관계에서 세대간 연대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덕적 요구도 절실합니다. 생태 위기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연대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그것이 경제적 위기든 식량 위기든, 환경적 또는 사회적 위기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위기이며, 그 모든 위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성공한 경험들에는 의지하고 실패한 경험들은 단호히 버리는 새로운 참여 방식과 형태를 통한 연대와 절제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를 식별과 새로운 계획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계획’에 기원을 두고

확실히 국제 공동체가 당면한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공동 전략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사회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좀 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실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에너지 형태의 연구와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려면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인 재분배 역시 필요합니다.”

환경과 지구 자원의 지속 가능한 포괄적 관리는 인간 지식이 과학 기술 연구와 그 실천적 응용에 지혜를 모을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요청하신 “새로운 연대”와 제가 ‘200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호소한 “세계적 연대”는 더 나은 국제 공조를 통한 지구 자원의 관리로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모으는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특히 환경의 황폐화에 맞서 싸우는 일과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일 사이의 관련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 두 가지 연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체적 발전 노력은 인류 전체의 공동 발전 노력에 결부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황폐화 문제가 사회와 환경, 나아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지속될 수 없는 우리의 생활 양식과 현재의 생산과 소비 양식을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개별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제 자리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생태학”을 존중하는 생태적 책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헌신하는 현대 시민 사회의 여러 단체와 비정부 기구는 의식 고취와 교육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땅과 물과 공기를 보

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자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공공 생활에서 그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황폐화는 인류의 공존을 이루는 문화적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개인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태적 책임 의식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꺼이 격려합니다. 이 책임은 「진리 안의 사랑」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다운 “인간 생태학”을 수호하여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인간의 존엄, 인간이 이웃 사랑과 자연 존중을 배우는 가정의 고유한 사명을 강력하게 재확인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자연을 절대화하거나 인간보다 더 중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이 생태중심주의와 생물중심주의로 촉발된 환경 개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러한 개념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정체성과 가치의 차이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존엄”에 대한 이른바 평등주의적 관점을 명분으로 한 그러한 개념은 인간의 정체성과 탁월한 소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그러한 개념은 인간 구원의 원천을 순전히 자연주의적 차원에서 이해된 자연에서만 찾는, 새로운 우상숭배에 물든 새로운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불가분의 관계를 깨달으면 선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계시의 빛과 교회의 전통에 충실하여 저마다 여기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의 창조 사업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만물을”(콜로 1,20) 하느님과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의 빛으로 우주와 그 놀라운 장관을 바라봅니다.

바티칸에서 2009년 12월 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